

▶ 국립문화유산원 '2017 이수자단'

문화재 이수자들의 진짜 실력을 보여드립니다

공연은 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3차례 걸쳐
국가무형문화재 11편
시·도 2편 등 선정

문화재청 국립문화유산원(원장 강경환)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국민에게 선보이는 '2017 이수자단'을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전주 국립문화유산원 열쑤마루 공연장에서 연다.
지난 3월부터 국가· 시도무형문화재 이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이수자단' 공모·심사를 통해 국가무형문화재 11편, 시도무형문화재 2편 등 총 13편이 선정되어 이번에 무대에 오른다.
먼저 7월 첫 공연은 시작장애인으로서 전승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현아 이수자 공연으로, 고려·조선 시대 제도인 관현맹인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는 무대 '시각장애인 궁중악사의 우리 소리 진수성찬'(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7.1)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유산원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국민에게 선보이는 '2017 이수자단'을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전주 국립문화유산원 열쑤마루 공연장에서 연다.

우리 춤(국가무형문화재 제39호 차용무/7.29)을 만날 수 있다.
8월에는 판소리 '심청가'를 중심으로 진도씻김굿, 경기도도당굿이 만나는 무대 범피리(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8.12), 대금산조를 중심으로 가야금, 살풀이춤을 더하여 관객과 눈높이를 맞춘 적음거유II(국가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8.19) 쉽게 접하기 힘든 이북지역 예술의 멋과 향수를 맛볼 수 있는 함경도의 소리 '함성'(함경북도 무형문화재 제1호 애원성

/8.26)이 펼쳐진다.
9월에는 국악의 다양한 소리와 사설을 현대적 감성으로 교감을 시도한 만, 비로소 가독차다(국가무형문화재 제82-4호 남해안별신굿/9.2), 호남 춤의 정통성과 역사성을 맛볼 수 있는 호남무림(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5호 호남살풀이춤/9.9), 강릉단오제를 전승하고 있는 젊은 이수자들의 막강한 실력을 맛볼 수 있는 화룡점정-단오·오뎅이 한 점을 찍다(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9.16), 남도 춤의 능

숙한 기교와 무게감 있는 연모지정(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제97호 살풀이춤/9.23), 경기민요 故목계월 보유자의 생전 육성이 담긴 영상과 사사한 작품을 각색한 목계월류 경기소리 담월을 그리며(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9.30) 무대가 마련된다.
모든 공연은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문화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을 참조하면 된다. 문의 280-1500.
/정해은 기자



최승범(왼쪽) 시인과 박남재 화백.

두 원로 예술인의 운명같은 동행

누벨백미술관 '박남재 화백과 최승범 시인' 시화전

브로맨스(남자들의 우정)라는 말이 제법 잘 어울리는 박남재 화백과 최승범 시인.
전북을 대표하는 두 원로 예술인은 젊은 시절부터 회로애락을 같이 하며 응원하는 사이, 이들은 서로를 뮤즈로 꼽는다.
전주 누벨백미술관은 '박남재 화백과 최승범 시인의 운명 같은 동행' 기획초대전을 마련한다.
이번 초대전은 고교 선후배로 시작한 올해 미수의 박남재 화백과 87세인 최승범 전북대 명예교수의 60년 동안 이어져 온 우정과 예술적 교류를 조명한다.
최영희 누벨백미술관 관장은 "난초 향기처럼 맑고 깊은 두 거장의 60년 우정을, 예술의 혼으로 화선지에 실었다"며 "미술계와 문학계에서 독보적인 두 거장의 예술세계와 두터운 우정을 통해 삶의 훈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시는 고하 최승범 선생이 자필로 자작시를 쓰고 박남재 화백이 나란히 이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 완성한 시화 '있는 트는 속에' '세심' '수심가' '동화' '청매' 등 20여 점을 선보인다.
'푸른 산골 물 흐르듯 맑은 가락으로만/ 국화꽃 따들고 남산 보던 마음으로만 다스려/ 어쭙잡은 세월도 웃고 살 순 없을까. ('어쭙잡은 세월도 중')라는 최 시인의 시에, 박 화백은 그림의 작품관이 표출되는 붉고 기운생동한 산맥을 그렸다. 작품에는 흐르는 세월에도 변치 않는 그의 정신과 역동성이 드러난다.
전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정해은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내달 1일부터 무대공연작품 페스티벌

문화·예술적 감수성과 즐거움을 선사할 종합공연 페스티벌이 열린다.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은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2017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수행단체 18개 팀의 무대공연작품을 통합 발표하는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전북도가 주최하고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예술인의 예술창작을 활성화하고 지역민의 문화 향수권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페스티벌은 그동안 선정된 단체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무대공연작품 발표와 달리,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통합 페스티벌의 형식을 취한다.

소리문화전당서 수행단체 18개팀 작품 발표

이번 축제는 도내 문화예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행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재단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페스티벌 기간 동안 공연장 대관료 중 기본시설 사용료를 면제하여 단체들의 부담을 줄였으며,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는 올해 소리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에 맞는 무대공연작품을 초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재단은 18개 단체의 무대공연작품 중에서 객석점유율, 전문가 평가, 관객호응도, 단체별 성과발표 등의 항목을 비교·평가하여 우수공연작품 2팀을 선정 후 재공연 할 수 있도록 2차 공연비(각각 1500만원·200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

다.
공연은 7월 1일 고래의 노래 '푸른고래 수유 날다'(푸른 숲)를 시작으로 2일 판소리 '모름전'(제이유창극발전소), 3일 천년의 달 2017(황토레퍼토리컴퍼니)·판소리극 '화용도(문화예술공작소), 4일 실크로드 위대한 여정 '백제 아리랑'(에미아트)·클래식 음악극 '빈 아파트에 사는 빈 악파들'(가온스토리클래식), 5일 웨딩 해프닝(극단 하늘)·소리극 '달룽개'(애기보따리), 6일 음악시트콤 오페라 '프로포즈'(전주오페라단)·놀부전(온고을 소리창), 7일 김수로, 강성진과 함께 떠나는 유쾌하고 재미있는 세계뮤지컬 페스티벌(소리문화창작소 신)·맘 그리운 날에



(산조전통무용단), 8일 오페라 나비부인(뮤직씨어터수바빙)·그림자극으로 떠나는 환상의 음악여행 '비발디의 사계'(아리랑심포니오케스트라), 9일 3D 미디어 퓨전타악콘서트 '브릴란테'(소리지존퓨전타악퍼포먼스), 10일 시소와 공기나무(최재희퍼포밍아트그룹)·전라 금척(춤, 전라북도)·아! 토리주머니(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 등 국악(5)·연극(3)·무용(4)·음악(4)·다원(2)의 다채로운 무대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전북은행, '문화가 있는 날 공연' 성료

전북은행은 지난 28일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전북은행과 함께 하는 제10회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이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공연에서 (사)꼭두는 대사 없이 오로지 배우들의 연기와 춤으로 진행되는 너비벌 퍼포먼스(Nonverbal Performance) 인형극 'Play 樂 피노키오'를 선보였고, 스토리의 전개에 따라 대형캐릭터 인형들의 열연과 신기한 풍선매직쇼 등을 통해 공연장을 찾은 500여명의 아동과 가족들에게 꿈과 즐거움을 선물했다.
특히, 전북이벤트MC협회의 사회 재능기부, 전북은행 금융사기예방교육, 전북대학교총동아리연합회 '엔터테인먼트'의 식전공연 등 한층 더 풍성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이날 행사를 구성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은행 노시영 사회공헌부장은 "다양한 볼거리와 정보를 제공한 이번 공연을 통해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문화예술로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도내 문화·예술·공연분야의 사회적기업을 초청해 활동무대를 마련하고 전북도민에게는 정기적인 공연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월, 6월, 9월, 12월 넷째 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문화가 있는 날'을 개최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장수!

Healing 여행!

장수는 심심계곡의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로 발길 닿는 곳곳이 관광휴양지이며, 고랑 고랑 먹거리마다 청정장수가 주는 선물로 가득합니다.

방화동계곡

송마체험장

와룡자연휴양림 물별매장

NAVER 장수물 검색 장수군